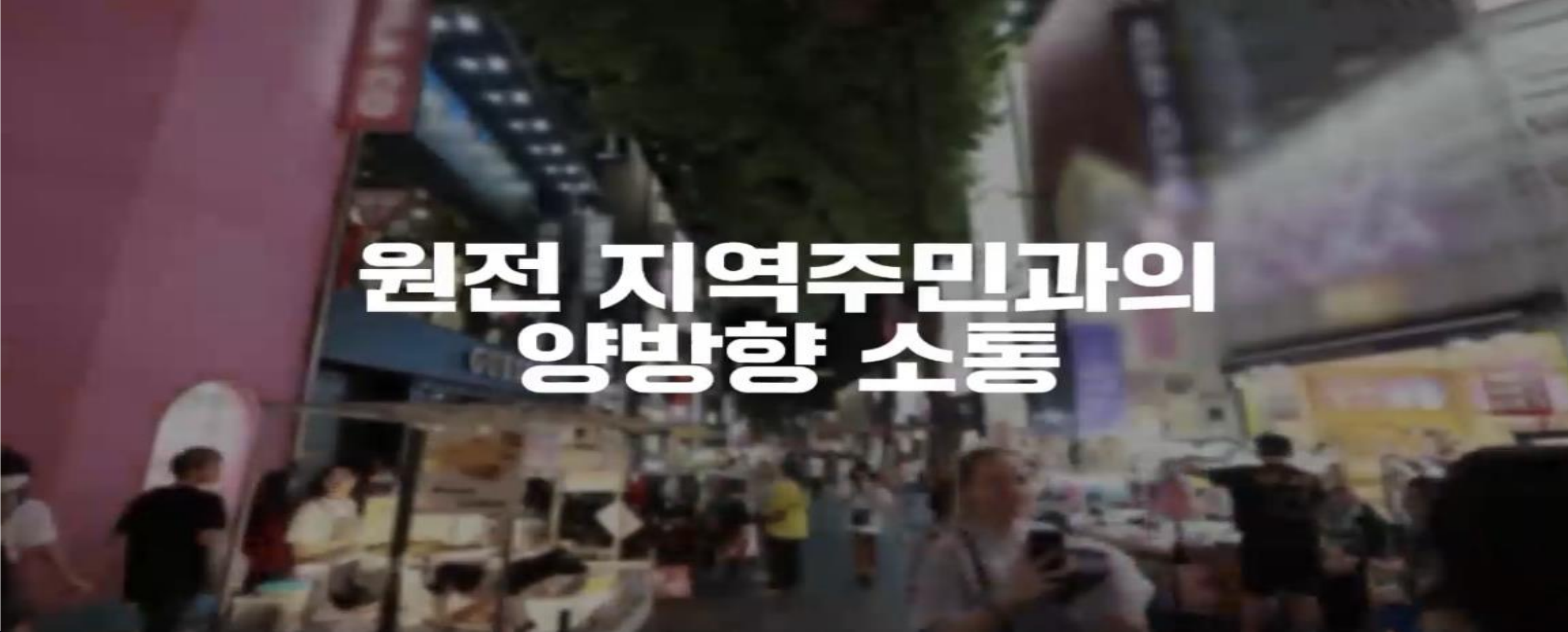




원전 지역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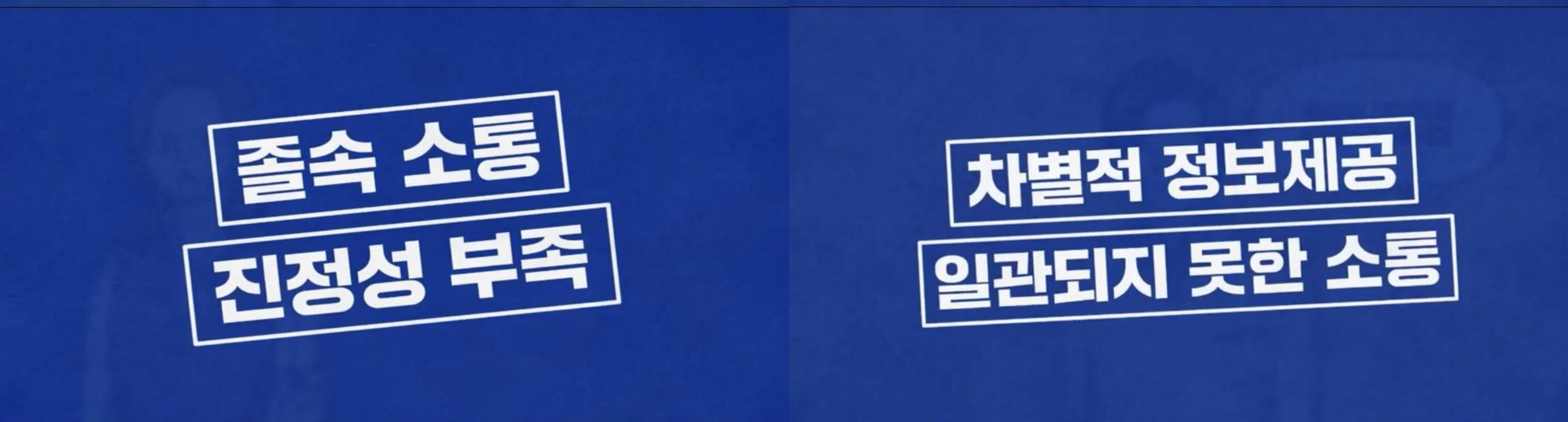


우리나라 원전 지역 주민 실정에 맞는 소통



어려운 용어 사용
눈높이 소통 실패

일방적 주장



줄속 소통
진정성 부족

차별적 정보제공
일관되지 못한 소통



원자력정책기관

잘못된
지역어른 형성을
주도할 때가 있어서



원자력유관기관

그러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필요라고 하질
않으실 때가 있어



원자력사업자

어떤 때는 재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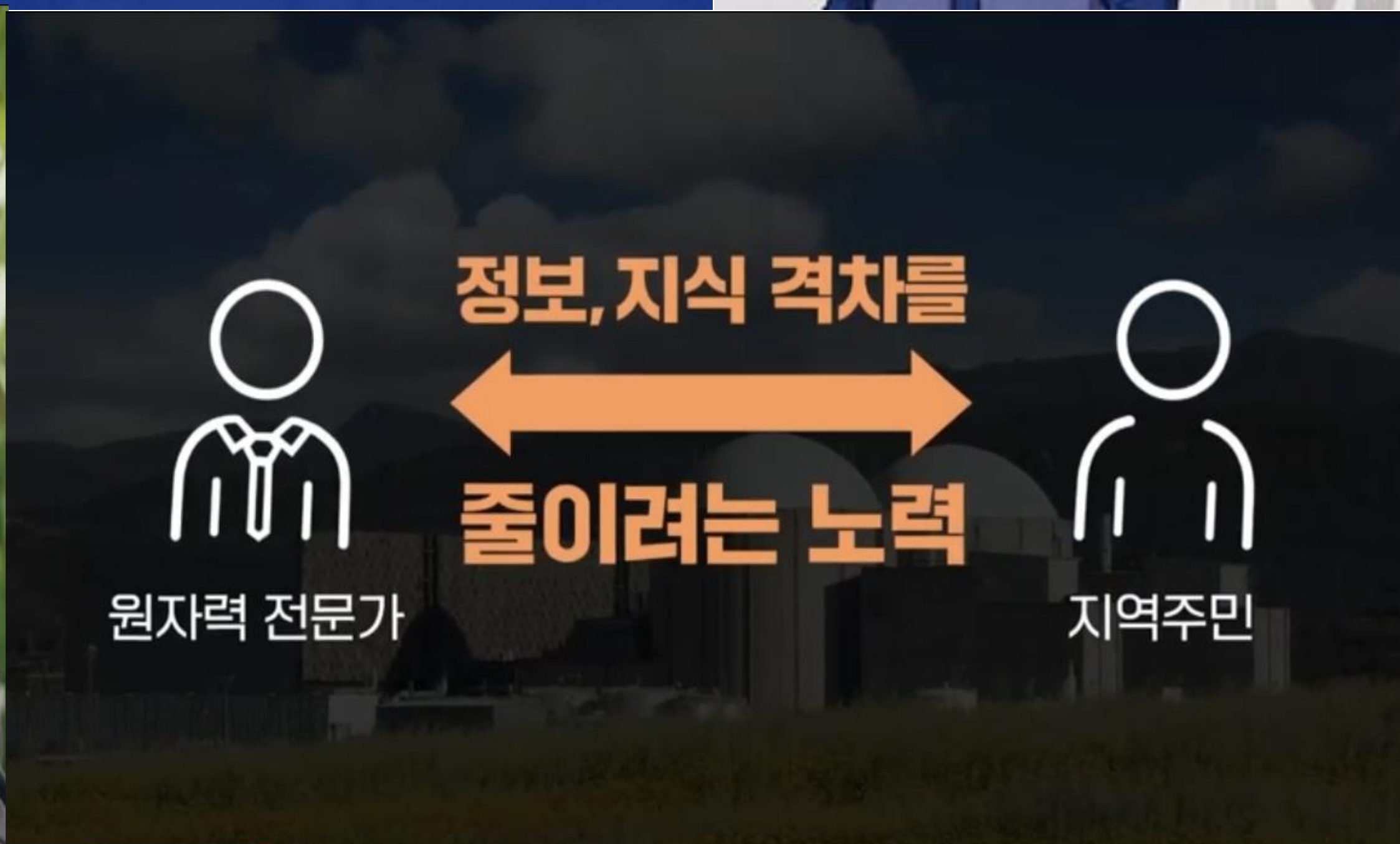


원자력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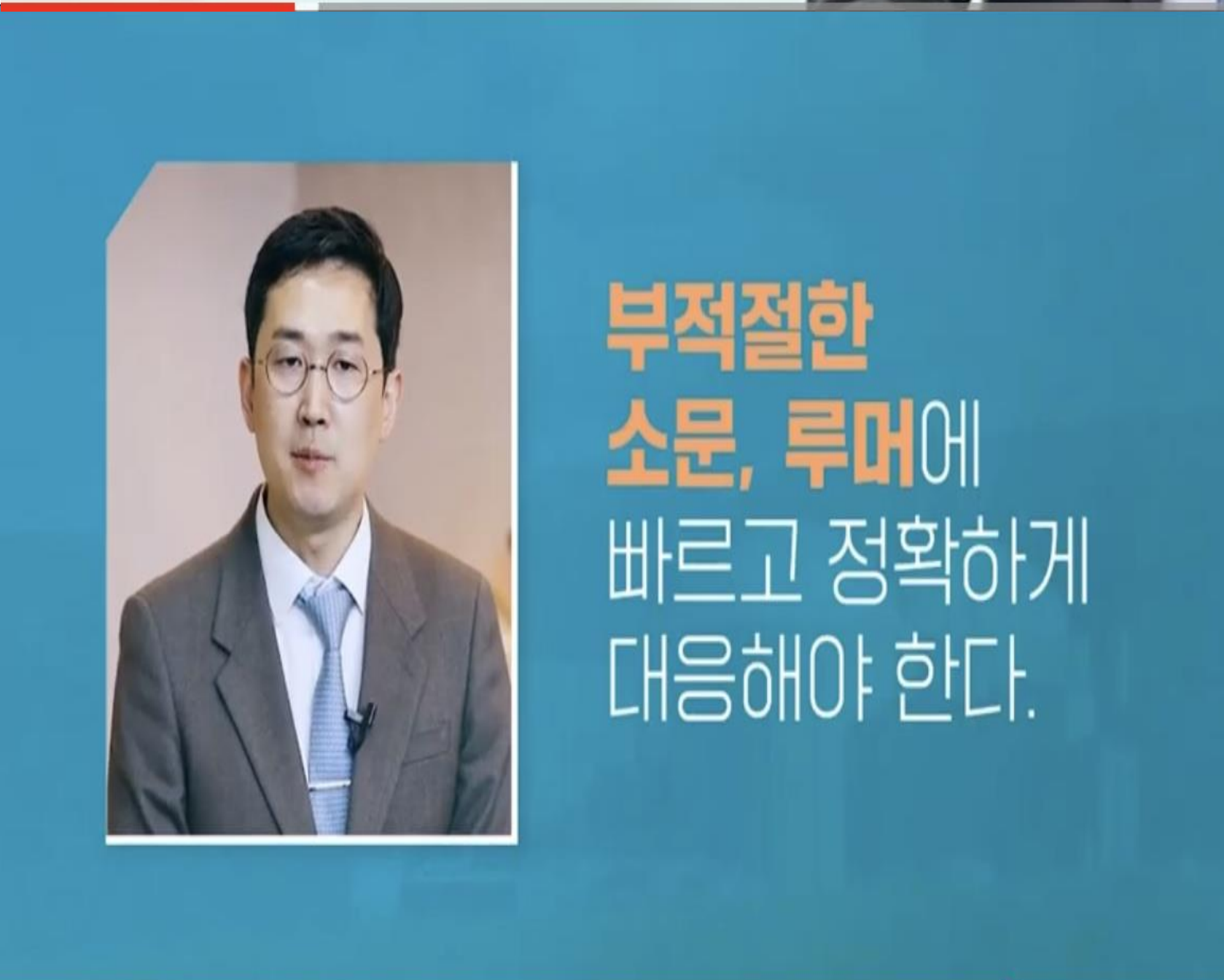
각자 요구사항이
너무 자주 달라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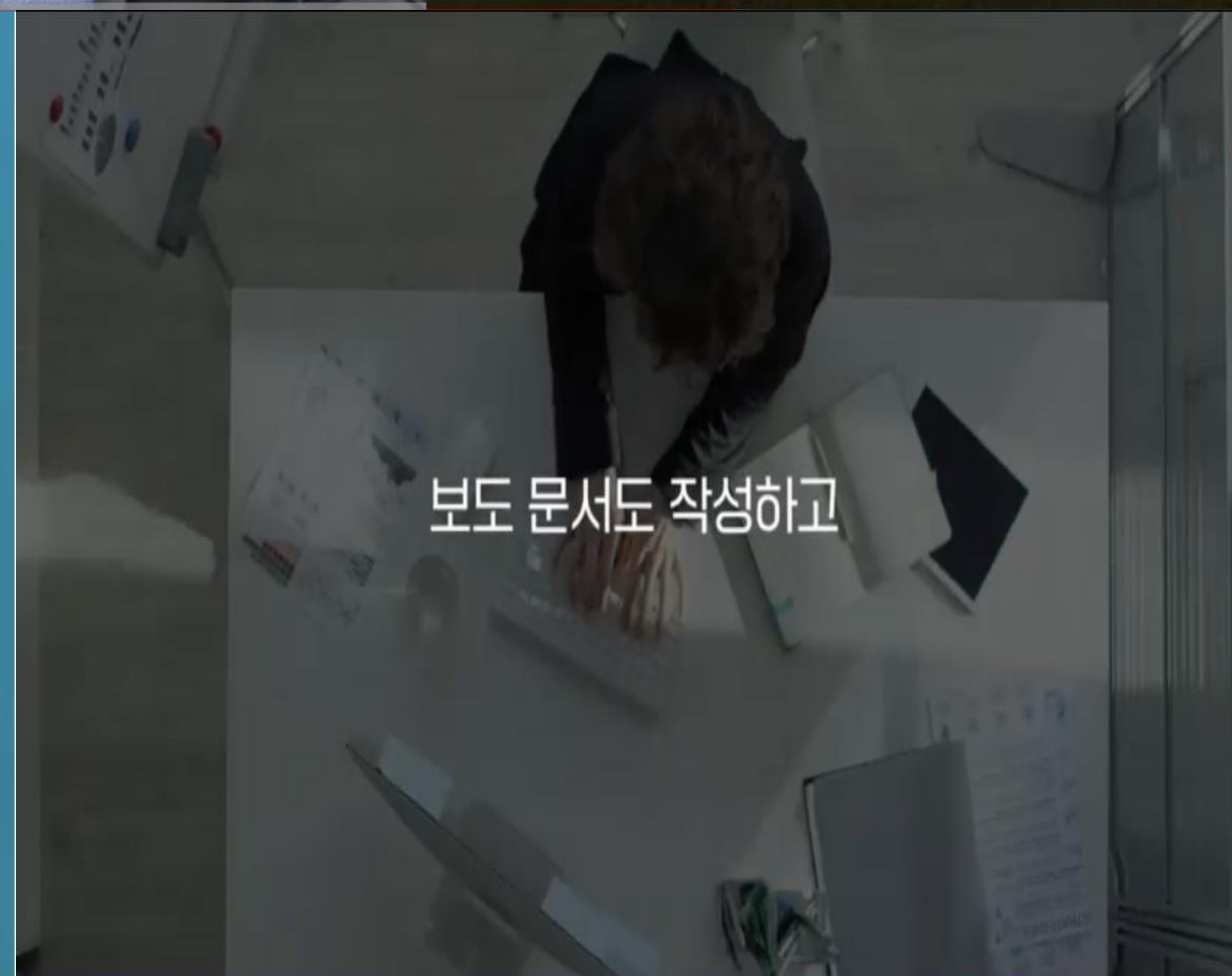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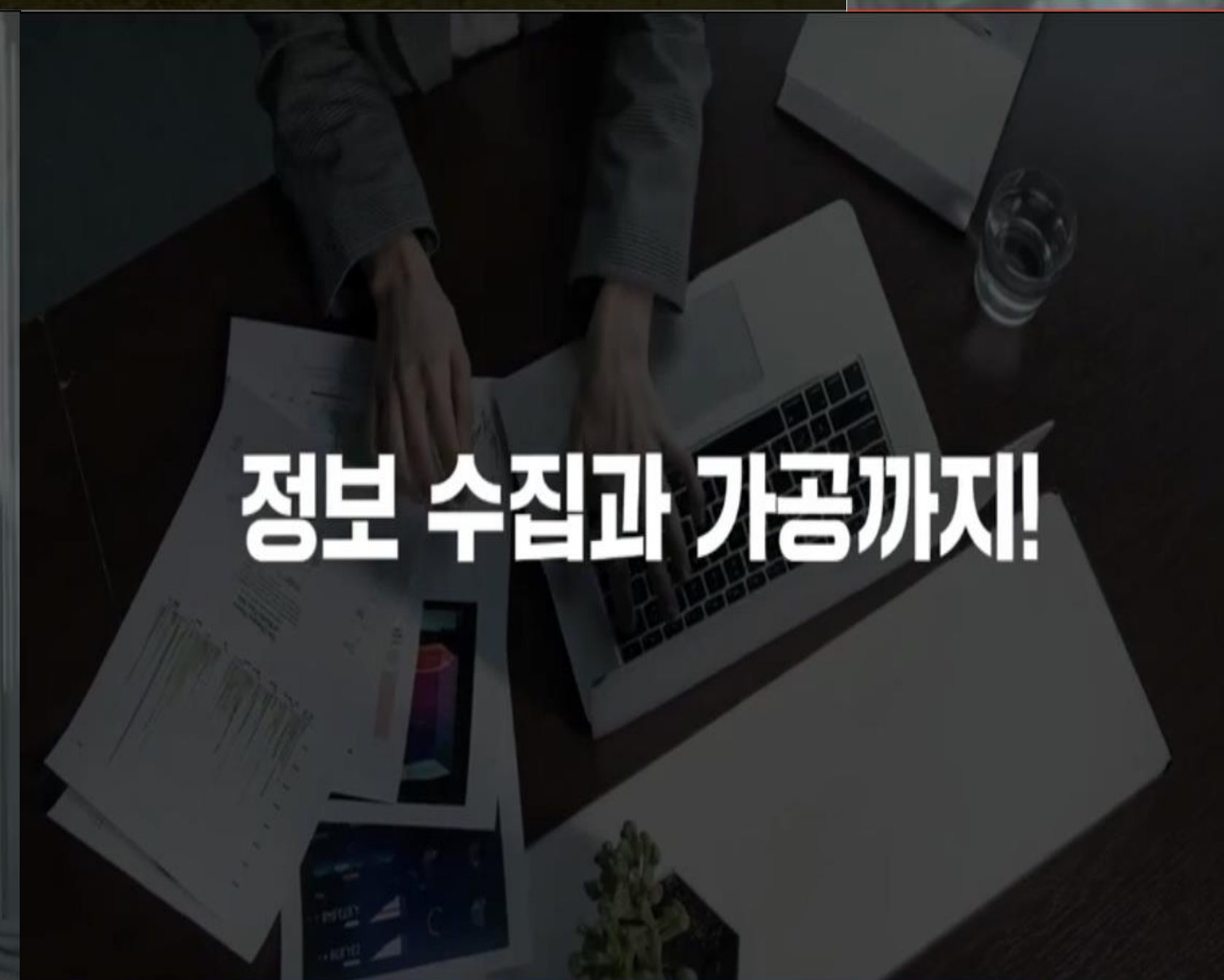
우리나라 원자력 정서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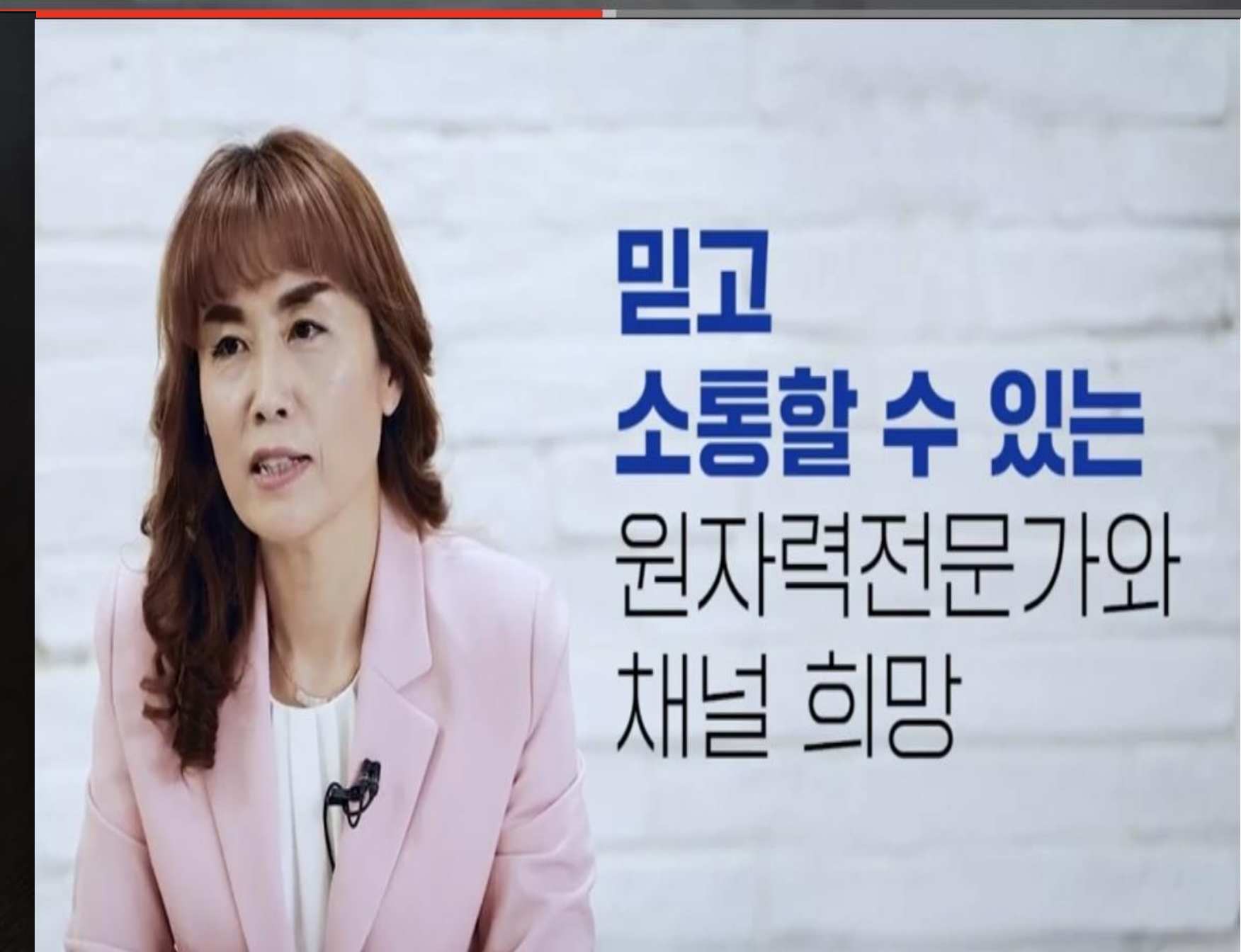
부적절한
소문, 루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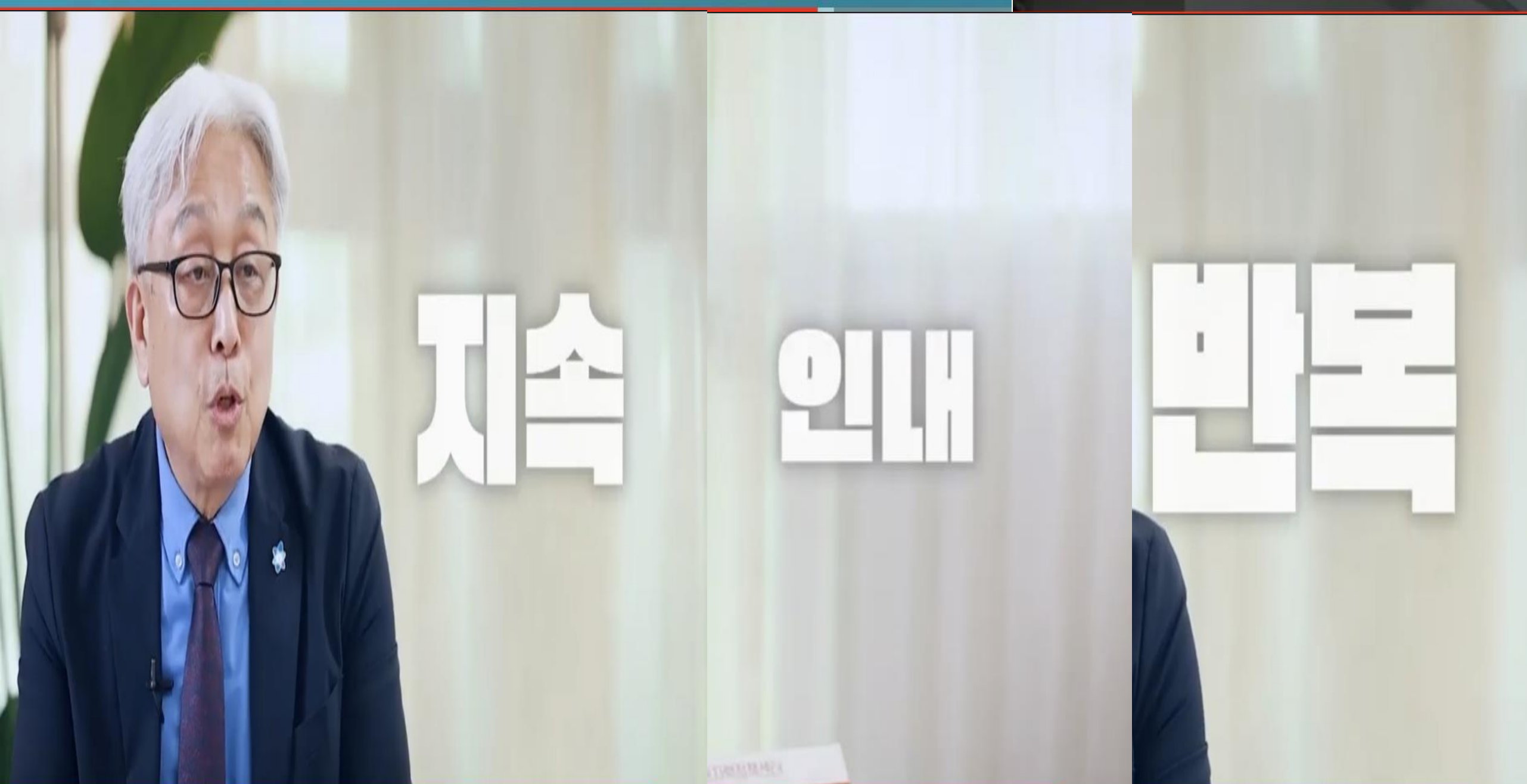
보도 문서도 작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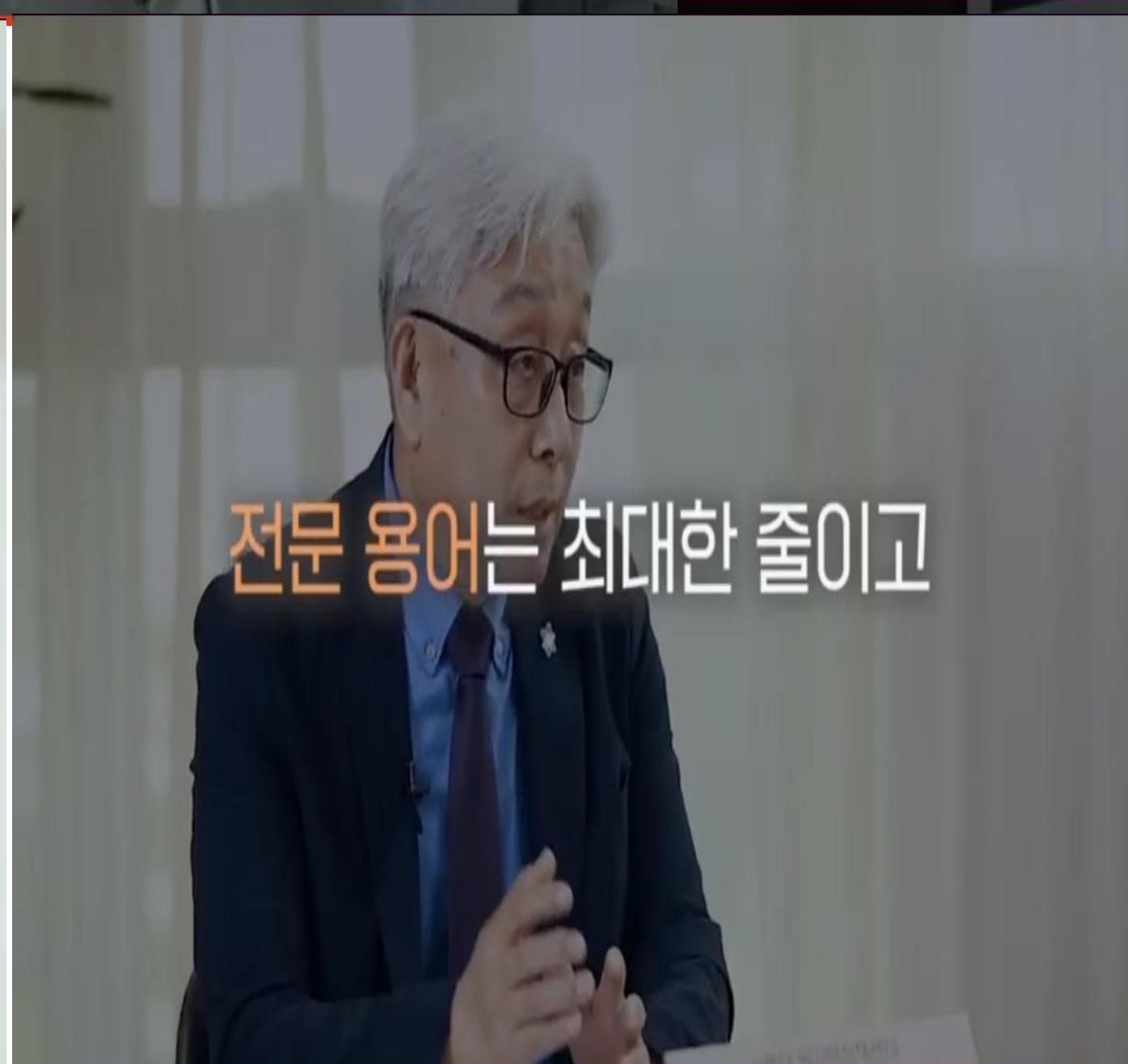
정보 수집과 가공까지!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전문가와
채널 희망



지속 인내 반복



전문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 입장에 서서 쉽게 설명



건강한 소통을
합시다!



충분히 공감 됩니다.



진작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요!



영상처럼만 된다면
모두가 좋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건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핵심정리

- ▣ 단편적, 일례적 소통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소통을 시도합니다.
- ▣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나 비유를 들고, 그림이나 영상을 활용하여 설명합니다.
- ▣ 현재 상황과 검토 중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음 브리핑까지 안내하는 친절한 소통을 합니다.
- ▣ 원자력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차원에서 공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 나갑니다.